

文, 4개 도시 1000km 대장정... 安, 부인·딸 출동 바닥 훑기

문재인·안철수 주말·휴일 ‘호남대전’

제19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권 뒷받침 광주·전남의 막판 민심을 잡으려는 ‘호남 대첩’이 치열하다.

양당은 사실상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전 선거일(4~5일)을 앞둔 주말과 휴일인 지난 29일과 30일, 광주·전남에서 뜨거운 일전을 벌였다. 이번 주중에도 대선 후보들이 직접 광주·전남 방문을 계획하는 등 선거 막판까지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주말인 지난 29일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누비며 호남에서의 ‘안풍(安風)’ 차단에 주력하며 ‘文 대세론’ 굳히기에 총력을 썼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여사와 딸 안설희씨가 1박2일 일정으로 바닥 민심을 훑었다. 안 후보의 딸 안설희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각종 행사와 유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순천, 광주, 목포 등 4개 도시를 연이어 찾으면서 그야말로 ‘호남 대장정’을 벌였다. 서울에서부터의 거리로 따지면 하루만에 무려 1000km를 이동하는 셈이라고 문 후보 측은 밝혔다. 문 후보가 이처럼 강행군에 나선 것은 황금연휴와 사전투표(다음 달 4~5일)를 앞두고 ‘뒷밭’에서 확실하게 승세를 굳히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호남의 경우 반문(반문재인) 정세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 전통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다 막판 1명의 야권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의 경향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공을 들

文 “내가 DJ계승 책임자”

安후보 딸 첫 유세 눈길

홍준표 오늘 첫 광주 유세

여야 한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판단이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이 호남정신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할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와 함께 필박 받고, 광주와 함께 살아온 후보는 문재인 뿐”이라면서 “광주시민과 문재인, 몸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정신은 하나였다.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역사, 문재인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역사가 꼭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겨냈다”면서 “저도 ‘중북 좌파’로 자그자그하게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국민은 안보를 제일 잘할 후보로 제가 1등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목포 평화로 유세에서도 “호남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 했다”면서 “호남 아들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광주 유세에는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 충청권을 누비는 가운데 부인 김미경 교수와 딸 설희씨, 광주 8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도심 곳곳으로 흩어져 동시다발 유세전을 벌이며 딸 그레로 바닥민심을 잡는 전략에 집중했다. 안 후보가 수도권 호남 향우를 표심을 자극하는 사이 현역의원들과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는 당내 최대 기반인 호남을 지키는 ‘양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주말과 휴일 1박2일 일정으로 딸 안설희 씨와 함께 광주 선거운동에 나서 “호남이 선택해주면 이길 수 있다”면서 “호남 시위 안철수에게 힘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자신을 ‘안철수 아내 여수덕’으로 소개한 김 교수는 “저는 호남의 딸이고, 제 마음의 고향은 호남이다”며 “항상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 호남의 딸로 제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 주승용, 박주선, 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 등 간판 정치인은 물론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도 주말과 휴일 호남에 머물며 바닥 민심 잡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호남으로부터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안 후보는 선거일 D-3일인 6일 또는 마지막 휴일인 7일에 호남을 찾아 막판 총력 유세를 펼치며 ‘안풍’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지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처음으로 1일 광주를 찾아 오전 11시 광주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안 ‘최대표표’ 수도권 유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거점 유세에서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캠프 합류 김종인 “2018년중 개헌 완료, 2020년 7공화국 출범”



“홍준표도 배제 않을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에 합류한 김종인 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안 후보가 제의한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공동정부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되, 사실상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언제 개헌이 적용될 것인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인데, 국회가 2020년 20대 국회 임기(시작)와 함께 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확정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안 후보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안 후보의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를 오늘부로 가동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 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 개혁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개혁공동정부 대상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한 대로 개혁공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디를 특별히 배제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홍 후보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일화에 대해 “원래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다. 어떤 가능성이 대두될지는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패권을 위주로 정치했던 세력은 참여를 시킬 수 없다”며 강경 친박(친박근혜)과 강경 친문(친문재인) 진영과는 손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안 후보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내가 추천권을 갖는데 (안 후보가)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겠느냐”라며 “전권을 갖는다고 해서 임명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득권과 나눠먹기” vs “계파패권 가짜통합”

文·安 공동정부 구상 공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상대의 방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문 후보는 지난 29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한 유세연설에서 안 후보의 ‘개혁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이게 훗날민심이 맞다. 이게 정권교체 맞아”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하든 선거만 이기려는 정치공학, 정권 야합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안 후보가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맡기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다수세력에 총리를 내어 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려면 정권도 나

눠줘야 한다. 권력도 나눠주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내각제도 받아들이고 임기단축도 ‘오케이’라면서 “이게 전북과 호남의 개혁정신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익산은 기득권 세력의 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북은 민주 개혁세력의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서 “이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지난 30일 “문재인 통합정부”는 계파패권을 감추기 위한 꾀대기 통합이자 선거를 위한 속임수”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수원역 앞에서 한 집중유세에서 “선거 때에만 통합을 말하고 선거가 끝나면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먹는다. 또 속였는가”라며 문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자신의 ‘공동개혁정부’ 구상을 ‘적폐연대’로 헐뜯은 데 대해 “문 후보는 또다시 적폐연대론을 끄집어냈다. 말로는 통합을 한다면서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또다시 적폐라고 한다”며 “이는 국민 모독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모는 건 진보 가치가 아니라 수구세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전날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통합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끼리끼리 나눠 먹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탄핵반대세력과 계파패권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를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 6회 진도개의 날 기념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5.6.(토) ~ 5.7.(일)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

2017

또 하나의 가족, 진도개는 내친구!

스포츠독, 어질리티, 프리스비, 플라이볼, 프리스타일, 독댄스 방위견 : 경비, 인명구조
 애견과 함께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캐니크로스) 애견상담소 운영, 훈련, 애견교육
 애견과 함께하는 게임, 애견줄다리기, 뽀빠댄스, 애견 강기자랑 / 진도개 공연
 경주 · 어질리티 시범 / 진도개 높이뛰기 대회 / 진도개 상식 O X 퀴즈

[주관] Jindo 진도군
[후원] 진도개명견화사업단